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성경의 권위, 내용, 목적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성경의 권위, 내용, 목적'. 본문에 찍힌 쪽은 270~273쪽이고, 장은 269쪽 무렵부터 274쪽까지로 보인다. 장 번호는 25장으로 추정한다. 본문이 앞 장을 '24장'이라 부르고, 끝에 '제26장'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앞 장(24장)의 결론에서 출발한다. 성경의 목적은 구속, 곧 죄인을 건지는 일이다. 하지만 그 구속이 삶 전체를 새롭게 하므로 성경의 관심을 '종교 영역'으로 좁힐 수 없다. 이어 1970년대 화란계 개혁교회 논쟁(보고서 44)을 소개한다. 그리고 “권위는 내용에서 나온다”는 전제를 그냥 받지 말고 따져 보자고 제안한다. 그는 이 말이 세 가지 의미에서는 맞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권위의 궁극적 근거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시다'는 사실이라고 결론짓는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 디모데후서 3:16). 마지막으로 성경의 권위를 '구원 기능'으로 좁힌 로저스·맥킴의 주장을 비판한다. 교회사 논쟁이 아니라 성경 자신의 가르침이 최종 기준이라는 다섯 가지 확언으로 장을 닫는다.

📜 절별 정리

(원문에는 소제목이 없다. 논증 단락을 따라 일곱 절로 나누었다.)

📜 1. 앞 장에서 이어지는 문제: 구속적 목적은 좁지 않다

앞 장에서 프레임은 성경의 내용과 목적을 다루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이 구원 문제만 다루는 책이라고 말한다. 그러니 과학·역사·심리학·철학 같은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계시를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프레임은 성경의 목적이 구속적이라는 데는 동의한다. 하지만 그런 '좁은' 의미의 구속은 아니라고 답한다. 구속 자체가

주제에 대해서만 듣겠습니다”라는 단서를 다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 발 앞에 엎드려 듣고, 무엇을 말씀하시든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 장에서 그는 영향력 있지만 부적절하다고 보는 견해들에 답하면서 권위·내용·목적의 관계를 더 분석하겠다고 예고한다.

1. 성경의 목적은 구속이 맞다
2. 그러나 구속은 삶 전체를 새롭게 한다
3. 과학·역사도 하나님 관심 밖이 아니다
4. 인격적 말씀에 '주제 제한'을 걸 수 없다
5. 태도: 엎드려 듣고 무엇이든 받기

> **(이 절에서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근거는 앞 장(24장)에 있다고 전제함

> **고린도전서 10:31 *(정리자 보충, 이 장에서는 인용하지 않음)***
> 먹고 마시는 일까지 하나님 영광의 영역이다 → 구속의 범위가 삶 전체

> **고린도후서 10:5 *(정리자 보충, 이 장에서는 인용하지 않음)***
>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 학문·사고도 제외되지 않음

📜 2. 1970년대 논쟁: 보고서 44와 화란개혁교회의 질문

프레임은 실제 논쟁 하나를 사례로 든다. 1970년대 개혁교회들, 특히 화란(네덜란드) 개혁교회 배경의 교회들 사이에서 '성경의 권위와 내용의 관계'가 논란이 되었다. 1972년 북미 기독개혁교회(CRC, 번역서 표기는 '북미개혁장로교단')의 연구위원회가 총회에 보고서 「성경 권위의 본질과 범위」를 냈다. 이 문서가 흔히 '보고서 44'로 불린다. 이 보고서는 개혁에큐메니컬총회(RES)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었다. 그리고 RES의 요청은 화란개혁교단(GKN)이 공동 토의를 제안하면서 시작되었다. GKN 쪽 논의는 연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로 이어졌고, 프레임은 이것이 1980년대 델프트 총회에 제출되었다고 소개한다. GKN은 RES와 CRC가 앞서 내 설명이 현대 문제를 다루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특히 그리스도

권위'의 관계를 다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프레임은 이런 논쟁이 지금도 개혁 진영에서 이따금 들린다고 덧붙인다. 보고서 44에 대한 자세한 비평은 부록 I에 있다.

1. 1972년 CRC 보고서 = '보고서 44'
2. 계기: GKN → RES → CRC 순의 요청
3. GKN: 기존 성명은 현대 문제에 부족
4. 쟁점: 내용·목적과 권위의 관계
5. 보고서 44 비평은 부록 I

> **(이 절에서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는 단락

📜 3. 질문을 던지는 방식이 이미 답을 정해 버린다

프레임은 GKN의 질문 방식부터 문제 삼는다. GKN은 성경의 권위가 내용의 '결과로 생겨나고', 내용에서 '연역할 수 있다'는 것을 깔고 시작한다. 연역은 전제에서 논리적으로 끌어낸다는 뜻이다. 그러고 나서 둘의 관계를 논의하자고 한다. 하지만 이 전제 자체가 이미 특정한 관계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 이 질문을 그대로 받으면 어떤 답에 이를지가 처음부터 한쪽으로 기운다. 프레임은 이 명제를 전제로 삼지 말고 논의의 대상으로 올리자고 말한다. “이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이며, 과연 사실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1. GKN의 질문에는 이미 답이 들어 있다
2. '내용 → 권위'를 전제로 깔았다
3. 전제는 따져 볼 대상이지 출발점이 아니다
4. 물을 것: 무슨 뜻이며 사실인가?

> **(이 절에서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논리적 문제 제기 단락

📜 4. "내용에서 권위가 나온다" — 맞는 말인 세 가지 의미

프레임은 상대 명제를 통째로 버리지 않는다. 세 가지 의미에서는 사실이라고 인정한다. 첫째, 경험의 순서다. 우리 대부분은 예수님을 먼저 알고 그다음에 성경의 권위를 알게 된다. 성경이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성경에 끌린다. “이 책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먼저 정한 다음 무슨 내용인지 조사하는 사람은 없다. 둘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근거는 성경이 자신에 대해 가르치는 내용이다. 이것도 결국 성경 내용의 일부다. 앞 장들에서 다룬 성경의 자기 증언을 가리킨다. 셋째, 최종적으로 권위를 갖는 것은 성경의 내용이다. 무엇을 믿고, 행하고, 느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는 것이 내용이다. 권위 개념을 포함한 성경론 자체도 성경 내용의 일부이며 성경 내용에서 나온다.

1. 상대 명제를 부분적으로 인정함
2. ① 예수님을 먼저 알고 권위는 나중에
3. ② 권위의 근거 = 성경의 자기 증언
4. ③ 권위를 갖는 것은 결국 내용
5. 성경론도 성경 내용에서 나온다

> **(이 절에서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둘째 의미는 앞 장들의 '성경의 자기 증언' 논의를 가리킴(“살펴보았듯이”)

📜 5. 두 가지 위험, 그리고 궁극적 근거: 하나님이 저자이시다

그러나 내용을 권위의 '원천'으로 삼으면 위험이 생긴다. 프레임은 사람들이 실제로 끌어낸 잘못된 결론 두 가지를 짚는다. 첫째, 성경을 믿는 근거가 성경의 자증이 아니게 된다. 대신 “이 메시지는 중요하다”는 우리 자신의 독자적 가치판단이 근거가 된다. 둘째, 핵심 메시지와 별 관련 없어 보이는 부분은 그냥 사람의 말로 취급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프레임의 정리는 이렇다. 내용을 전혀 모르면 권위를 고백할 수 없는 것은 맞다. 하지만 내용이 권위의 궁극적 원천은 아니다. 성경적 복음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를 인용한다. 성경의 권위는 사람이나 교회의 증언이 아니라 진리 자체이신 저자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 전체가 권위를 갖는다. 우리 눈에 매력적이거나, 설득력 있거나, 시대에 맞거나, 문화적으로 존중받을 만해서가 아니다. 바울 말대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1. 위험 ①: 내 가치판단이 믿음의 근거가 됨
2. 위험 ②: '덜 중요한' 부분은 사람 말 취급
3. 복음 담은 책 ≠ 정경
4. 권위의 궁극적 근거 = 하나님이 저자
5. 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 때문에 전부 권위

> **디모데후서 3:16**
> '모든'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므로, 우리가 끌리는 부분만이 아니라 전부가 권위를 가진다
>
>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신적 기원(Divine authorship)이 성경 권위의 궁극적인 이유이다.”

📜 6. 로저스·맥킴 비판: "칼빈은 구원 기능, 튜레틴은 무오한 형식"?

많은 신학자들은 성경의 목적을 좁은 의미의 구속으로 본다. 성경은 역사나 과학에서 무엇을 믿을지 알려 주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 대표 사례가 잭 로저스와 도널드 맥킴의 책 『성경의 권위와 해석』(1979)이다. 그들의 주장은 이렇다. 칼빈과 초대 교부들은 성경의 권위가 사람을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구원 관계로 이끄는 '역할'에 있다고 보았다. 반면 튜레틴(17세기 제네바의 개혁파 신학자)은 권위가

자신들이 이해한 칼빈을 따른다. 즉 권위는 성경의 복음 전하는 기능에 있다고 본다. 프레임은 세 가지로 답한다. 첫째, 그렇다면 성경의 권위는 복음을 전한 빌리 그래함의 권위와 무엇이 다른가? 둘째, 이 인용은 칼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더 중요하게는 성경이 자기 권위에 대해 스스로 말하는 바와도 맞지 않는다. 셋째, 튜레틴도 권위를 '형식'에 두지 않았다. 그랬다면 성경의 권위는 정확한 수학 교과서의 권위와 다를 바가 없다. 칼빈과 튜레틴 모두 권위의 근거를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시라는 데 두었다. 프레임은 역사 평가를 길게 하지는 않는다. 대신 존 우드브리지의 비판서(1982)가 옳다고 본다. 우드브리지는 칼빈도 교부들도 '구원 진리'와 '과학·역사 문제'를 날카롭게 나누지 않았음을 자세히 보여 주었다.

1. 로저스·맥킴: 권위 = 구원으로 이끄는 기능
2. 반문: 그럼 빌리 그래함과 뭐가 다른가?
3. 형식이 근거라면 수학책과 다를 바 없다
4. 칼빈·튜레틴 둘 다 근거는 하나님 저작
5. 역사 평가는 우드브리지 비판에 동의

> **(이 절에서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 역사 해석 논쟁 단락. 성경적 답은 다음 절에서 제시

“그러나 그렇다면 성경의 권위는 빌리 그래함(Billy Graham)이 가진 권위와는 어떻게 다른가?”

📜 7. 결국 성경이 성경에 대해 말해야 한다: 다섯 가지 확언

프레임은 역사 연구가 큰 도움이 된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성경관을 궁극적으로 교회사 위에 세울 수는 없다. 칼빈이 무엇을 믿었는지가 최종 판정 기준이 아니라는 뜻이다. 성경관의 타당성은 성경 자체가 보증해야 한다. 그리고 성경은 로저스·맥킴처럼 자기 권위를 제한하지 않는다. 오히려 다섯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하나님이 정경 전체의 저자이시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성경의 목적은 좁은 의미가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구속적이다. 다섯째, 그 구속적 목적은 너무 넓어서 삶의 어느 영역도 빠지지 않는다. 장의 끝이 처음(1절)의 주장으로 돌아와 원을 이룬다.

1. 교회사 연구는 유익하나 최종 근거는 아님
2. 성경관의 기준은 성경 자신
3. 하나님이 정경 전체의 저자
4. 하나님은 무엇이든 말씀하실 권리가 있다
5. 구속의 목적은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

> **마태복음 4:4**
> 예수님이 신명기 8:3을 인용하신 말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일부'가 아니라 '모든 말씀'으로 산다 → 권위를 부분으로 쪼갤 수 없다
>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 **신명기 8:3 *(정리자 보충, 마태복음 4:4의 원래 구절)***
> 광야 이스라엘에게 주신 원래 말씀.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심

⚖️ 오해와 반론

📖 용어

권위
믿고 순종해야 할 정당한 이유를 가진 힘. 성경의 권위란 성경이 말하면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구속 / 구속적 목적
구속은 죄와 죽음에 묶인 사람을 하나님이 값을 치르고 건져 내시는 일이다. '구속적 목적'은 성경이 이 구원을 위해 주어졌다는 뜻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성경 66권의 목록. 신앙과 삶의 잣대가 되는 책들이다.

자증
성경이 교회나 사람의 보증 없이 스스로 하나님 말씀임을 증언한다는 것.

자율적 가치판단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이건 중요해, 이건 아니야”를 정하는 것.

신적 저작(번역서 '신적 기원', Divine authorship)
하나님이 성경의 궁극적 저자이시라는 것. 성경이 '어디서 왔나'보다 '누가 말하나'에 초점이 있다.

하나님의 감동(영감)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숨 쉬어 나왔다'는 뜻. 성경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이다(디모데후서 3:16).

무오
성경이 참이라고 말하는 것에 틀림이 없다는 것.

연역
앞의 전제에서 논리적으로 결론을 끌어내는 것.

인격적 말씀
하나님이 정보를 던지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프레임의 핵심 개념.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내용에서 권위가 나온다'는 말은 경험·근거·권위의 대상이라는 세 의미에서는 맞다.
- 그러나 권위의 궁극적 근거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이시다는 사실이다.
- 그래서 매력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권위를 가진다(디모데후서 3:16).
- 권위를 '구원 기능'으로 좁히면 성경과 좋은 설교자를 구별할 수 없게 된다.
- 성경관의 최종 기준은 교회사가 아니라 성경 자신이다.

🎬 이 장을 쓰는 편

- 성경론 11편 · 권위는 어디서 오나 ·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